

조기등판하는 ‘갤럭시노트9’ S펜 앞세워 패블릿 흥행재연

프리미엄 시장 선점 위한 빠른 출시
마니아 확보제품... 위기 돌파구 모색

삼성 갤럭시노트 신제품을 예년보다 빨리 내놓을 예정이다. ‘조기등판’하는 갤럭시노트9를 통해 패블릿 시장을 지킬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대화면 스마트폰(패블릿)인 ‘갤럭시노트9’을 8월 초에 공개하고 8월 말 경에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에서 제품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공개일은 8월 2일 또는 9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가 8월 9일 갤럭시노트9 공개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일정은 예년보다 상당히 빠르다. 갤럭시노트8은 지난해 8월 23일 공개하고 9월 21일에 출시했다. 통상 가을에 출시하던 제품을 여름에 내놓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9월에 나올 애플의 새 아이폰에 앞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애플이 오는 9월 출시할 아이폰에 6.5인치 대화면을 탑재한 ‘플러스’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3억600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다고 집계했다. 삼성이 3월16일 출시한 갤럭시S9의 2분기 판매량은 좋지 않다. 업계에서는 갤럭시S9의 출시 첫해인 올해 출하량이 3000만대 초반에 그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갤럭시S3 이후 역대 최저 판매량이다.

삼성 판매량이 줄어드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갤럭시노트9을 전략 제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는 패블릿 시장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성능 좋은 S펜을 앞세워 특유의 마니아 층을 확보한 제품이다. 큰 화면으로 멀티미디어와 게임을 즐기려는

수요층이 꾸준하기에 판매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매력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경쟁자 애플이다. 애플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이 611억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했다. 아이폰 판매량은 5220만대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가량 늘어났다. 여전히 성장세인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플러스’를 통해 갤럭시노트가 위치한 패블릿 시장마저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패블릿 시장 수성 전략은 곧바로 갤럭시노트9에 반영될 예정이다. 외신 등은 갤럭시노트9의 외관은 갤럭시노트8과 비슷하며 하드웨어 구성은 갤럭시S9 시리즈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패블릿’답게 모던 것이 더 커진다고 예상하고 있다.

주요 매체 전망 가운데는 갤럭시노트9이 전작보다 1인치 커진 6.4인치 화면, 스마트폰 최초의 8GB 메모리, 이전 최대 저장공간인 256GB의 두배인 최대 512GB 저장공간을 탑재할 것인 내용도 있다. 또한 배터리 용량도 사상 최대인 4000mAh까지 늘어날 관측도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청년들과 공유인프라로 문제해결 나서

SK텔레콤 ‘행복 인사이트 시즌2’

SK텔레콤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자사의 공유 인프라를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댄다.

SK텔레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밝히는 ‘SKT 행복 인사이트 시즌2’ 프로그램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SK텔레콤이 내건 주제는 ‘SK텔레콤 공유 인프라를 활용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해 진행된 시즌1은 한 뼘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테드(TED)식 강연 형식으로 공유하고,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 참여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결선 진출자 10명 중 2명은 올해 초 SK텔레콤 채용에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올해 ‘SKT 행복 인사이트 시즌2’는 SK텔레콤의 공유 인프라 활용에 대한 의지와 청년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참신한 생각이 만나는 자리다. ‘SKT 행복 인사이트’는 46년간 이어진 ‘SK 장학퀴즈’의 인재육성 철학을 계승해 소통 플랫폼 형태로 진화·발전한다는 목표다.

이번 공모전 지원자(대학교 재·휴학생, 석사 1년차)는 500자 정도의 아이디어를 제시(6월 18일~6월 25일)하는 1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는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본선 통과자 30여 명은 SK텔레콤에서 근무 체험형 인턴십을 6주간 갖게 되며, 특히 30여 명 중 우수제안자 10명은 SK텔레콤을지로본사 SUPEX홀에서 최종 발표회를 갖게 된다. 우수 제안자들은 총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도 받는다.

SK텔레콤은 20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며 함께 소통하기 위해 ‘와이I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대학생들의 소풍명소를 알아보는 ‘캠퍼스 소풍여지도’ 제작 ▲20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세상을 잇다’ 프로젝트 ▲20대의 관심사와 생생한 일상을 데이터로 알아보는 ‘알못북’(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너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책) 발행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남인 기자 silkni@

최태원 SK회장 ‘시카고 포럼’서 기조연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스파크랩 데모 워크 행사 일환
‘더블 바텀라인’ 경영 소개 예정

스타트업 육성업체 스파크랩은 20일 서울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시카고 포럼’ 행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조 연사로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카고 포럼은 미국 시카고대의 연중행사다. 올해는 스파크랩 데모 워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최태원 회장은 시카고 포럼의 멤버로 활동하

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이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더블 바텀라인’(DBL) 경영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다양한 협업 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스파크랩은 “SK그룹이 지난 2015년 국내 스타트업 ‘쏘카’에 투자했고, 올해 1월에는 SK 오픈콜라보센터를 여는 등 스타트업 육성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안병도 기자



LS전선이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명노현 LS전선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판지위나타 AG그룹 회장(오른쪽 네번째)이 계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계약

4000만 달러 투자... 케이블 공장 착공

LS전선은 인도네시아 아르타그라하 그룹(AG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G그룹은 1973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10위권 대기업이다.

LS전선과 AG그룹은 총 4000만달러(약 440억원)를 투자해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인근 6만4000㎡ 규모 부지에 자카르타시 인근 6만4000㎡ 규모 부지에 전력 케이블 공장을 착공한다. 이 공장은 2019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인프라용 가공전선과 건설·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중저

압 전선을 생산한다.

LS전선은 이 공장이 2025년 약 1억달러(약 11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전선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매년 8% 이상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지난 수년간 진출을 모색해왔다”며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박찬길 기자 cgr@

LG전자, 성능·편의성 갖춘 차세대 마이크로 인버터 출시

베란다 태양광용 마이크로 인버터
효율 95.2%... 전력 손실 최소화



LG전자가 성능은 물론 편의성까지 갖춘 차세대 베란다 태양광용 마이크로 인버터를 6월말 국내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LG 마이크로 인버터’(사진)는 320W출력의 제품이다. ▲높은 수준의 변환효율 ▲설치가 간편한 가벼운 무게와 디자인 ▲쉽게 발전량 확인이 가능한 무선 통신 등 베란다 태양광용 인버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모두 갖췄다.

공동주택 베란단에 설치하는 가정용 소형 태양광시스템은 태양광 모듈과 마이크로 인버터로 구성된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된 직류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로 변환한다. 가

정 내 220V 콘센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게 설치와 사용이 쉽다.

‘LG 마이크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 효율이 95.2%로 매우 높다. 태양광 모듈이 발전한 전력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기존 국내 마이크로 인버터 제품의 효율은 94.3% 수준이다.

설치 편의성도 높아졌다. 무게는 국내에서 가장 가벼운 약 1kg로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두께 역시 31.5mm로 얇아 베란다 설치가 더 쉬워졌다. 마

이크로 인버터에 금속 대신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해서 별도 접지 연결이 필요 없다. 시공업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설치가 쉽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홀(Hole)도 오픈형으로 제작했다.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탑재했기에 발전량을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 제품들은 베란단에 설치된 인버터에 탑재된 액정(LCD)창이나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전력량계를 통해서만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병도 기자

LG전자 ‘스마트월드’서 BTS 테마 제공

LG전자가 콘텐츠 스토어 ‘LG 스마트월드’ 앱에서 방탄소년단 테마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최신 전략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 LG전자가 출시한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 테마를 적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LG G7 씽큐를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BTS 패키지’가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 모든 LG 스마트폰 고객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BTS 패키지는 10대부터 40대까지 고르게 인기를 얻으며 방탄소년단의 폭넓은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 테마는 사용자가 방탄소년단의 멤버를 고르면 각각의 테마 색상과 사진으로 폰을 꾸밀 수 있게 해준다. 배경색은 블랙으로 정제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바탕화면, 설정화면, 통화화면에서는 각각 멤버의 사진을 배경으로 띄워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